

교회소식

- 오는 26일 수요일예배는 그루터기(3,40대) 주관 헌신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준비하기 바랍니다.
- 다음 주일은 권사회 기도 주일입니다. 교회와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1시 30분, 느헤미야 실).
- 매주 금요일 7시 분당에서 저녁기도회가 있습니다. 성전 이전, 교회 창립 22주년 준비 등을 위해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 가정의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가족의 소중함을 일깨우며 자녀들에게 신앙의 중요성을 교훈하는 부모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 전반기 공동 성경읽기가 결승점을 향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인내하시고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범위: 신약 사도행전 22장-로마서 14장, 매일 3장).

공동 성경 읽기 일일 점검표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주일 |
|----------|--------|---------|------|------|-------|--------|
| 행 22-24장 | 25-27장 | 28-롬 2장 | 3-5장 | 6-8장 | 9-11장 | 12-14장 |
| | | | | | | |

읽음 ○ 덜 읽음 △ 못 읽음 x

우리 갈보리교회를 처음 방문해주신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담임 목사와 만남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예배 후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M A Y

교회사역일지

5월 2일(주일) 자녀 주일
5월 9일(주일) 부모 주일
5월 23일(주일) 성령 강림 주일
5월 26일(수) 그루터기 주관 예배

기도순서

5월 23일 (주일) 박병민 장로
5월 26일 (수) 이기중 권사
5월 30일 (주일) 손조훈 집사
6월 2일 (수) 이애란 권사

예배봉사자

예배 안내 김창조, 김영아
새신자 안내 차영철, 심경순
주차 안내 민광호
주방 봉사 박제란, 김명옥, 박영신, 허영순, 박혜정

70 Khyber Pass Road,
Grafton, Auckland
T 09 369 5077
M 021 968 388
E LTH-07@calvary.org.nz

www.calvary.org.nz
www.youtube.com/
calvaryorgnz
www.koreaniptv.co.nz



해/외/한/인/장/로/회
갈보리교회
창립 1999/07/18

오직
기도와
말씀
으로
빌립보서 4:6

예배시간안내

주일 1부 예배 11:30 am
청년찬양예배 2:00 pm
유아부 11:30 am
아동부 11:30 am
청소년부 11:30 am
수요일예배 7:30 pm
금요기도 7:00 pm

섬기는사람들

담임목사 이태한
부목사 이성훈
전도사 김양이

23권 20호 2021.05.16

주일예배

1부 오전 11시 30분 인도: 이태한 목사
2부 오후 2시 (청년찬양예배) 이성훈 목사

| | | |
|---------|------------------------|-----------|
| 찬양 | ----- | 주일 찬양단 |
| 예배로부름 | ----- 요한복음 7:37-39 | 인도자 |
| *찬송 | ----- 19장 | 다함께 |
| *참회의기도 | ----- | 다함께 |
| *신앙고백 | ----- 사도신경 | 다함께 |
| 찬송 | ----- 288장 | 다함께 |
| 대표기도 | ----- | 김병진 목사 |
| 성경봉독 | ----- 창세기 21:1-7 | 인도자 |
| 찬양대찬양 | ----- 말씀을 따라서 | 나무십자가 찬양대 |
| 설교 | -----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 이태한 목사 |
| 찬송 | ----- 오직 예수 뿐이네 | 다함께 |
| 헌금기도 | ----- | 인도자 |
| 교회소식 | ----- | 인도자 |
| *공동성경읽기 | ----- | 다함께 |
| *응답송 | ----- 171장 (1절) | 다함께 |
| *축도 | ----- | 이태한 목사 |

*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십시오. 헌금은 들어오실 때 봉헌함에 봉헌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는 Prayer Together에서 보내온 소식입니다.

올해 라마단 기간에 드러진 무슬림을 위한 특별 기도 기간이 오늘(5월 12일) 끝납니다. 그동안 각 나라의 도시를 중심으로 기도를 드렸는데 오늘은 시리아의 다마스쿠스를 위해 기도합니다.

다마스쿠스(성경에 다메섹으로 명명, 사도행전 9:2,3)는 바울 사도가 초자연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제자가 되고 세상을 바꾸는 사명을 시작한 곳으로 기독교 역사에서 유명합니다.

무슬림 인구가 239만 정도인 다마스쿠스는 기원전 2세기 무렵 세워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되고 지금도 사람이 거주하는 도시 중 하나입니다. 유네스코(UNESCO)는 이 도시의 고유한 역사적, 문화적 중요성 때문에 다마스쿠스를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했습니다. 이곳은 기독교 역사에서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무슬림이 십자군에 대항했던 중요한 전투지이기도 하고, 이슬람의 창시자 무함마드 사후에 세워진 네 왕조 중 하나인 우마이야 왕조의 수도이기도 했습니다. 우마이야 왕조는 무함마드의 후계자라고 주장하는 이슬람의 영적 지도자 칼리프가 다스렸습니다.

다마스쿠스는 21세기가 시작될 무렵 주로 취업과 교육을 위해 찾아온 젊은이들로 급속한 성장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많은 이들이 내전을 피해 도시를 떠났습니다. 현재 거주자의 대부분은 시리아 아랍인이지만, 일부 쿠르드족과 소수의 팔레스타인 사람도 존재합니다. 시리아의 기독교 인구는 국가 전체 인구의 10%를 차지하며, 다마스쿠스에서는 약간 더 높은 분포를 보여 도시 전체 인구의 15~20% 정도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또한 규모는 작지만 아주 오래된 유대인 공동체도 있습니다.

다마스쿠스의 그리스도인과 무슬림은 대체로 평화롭게 공존합니다. 그들이 시리아인으로서 함께 겪고 있는 더 큰 어려움은 바로 내전입니다. 전쟁이 계속되면서 소수에 해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박해와 지속적인 위협에 직면해 있습니다.

기도제목

1. 다마스쿠스의 기독교 공동체의 다양한 교파들이 연합하여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를 섬기도록
2. 다마스쿠스의 무슬림들이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를 극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수요예배

오후 7시 30분

| | | | |
|---|---|-------------------|--------------|
| 기 | 도 | Prayer | 신장우 집사 |
| 성 | 경 | Scripture | 디모데전서 5:1-16 |
| 설 | 봉 | Sermon | 성도들에 대한 자세 |
| | 교 | | 이태한 목사 |
| 찬 | 송 | Hymn | 419장 |
| 주 | 도 | The Lord's Prayer | 다같이 |

2021년 5월 9일 주일예배 설교말씀 <약속이 있는 첫 계명> 에베소서 6:1-3

모든 부모들은 자식들의 행통함을 소원하며 온 생애를 희생합니다. 그런데 자식들의 행통함의 비결은 부모에게 순종하며(1) 공경하는데(2) 있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할 때 자식들이 잘되고 땅에서 장수한다고(3)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2). 이것은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생명이 길리라는(출 20:12) 약속이 있는 첫 계명입니다. 무엇이 공경이고 순종인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1) 공경: 부모님을 대할 때 하나님을 대하듯 마음으로 하는 것이 공경입니다. 공경의 반대는 무시와 멸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급변하는 세상에서 자식들이 훨씬 아는 것도 능력도 더 많을 수 있으나 부모님을 무시하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공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루터의 말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그 역할을 부모에게 주셨습니다. 지존자이시며 전능자이신 하나님의 그늘 아래 살며 피난처와 요새로 삼는(시 91:1-2) 우리는 부모의 그늘에 있었기에 오늘 여기 있는 것입니다. 공경은 히브리어로는 “카베드”인데 영광을 뜻하는 단어로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자 중에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을 나타내시겠다 하신(레 10:3) 말씀에 사용된 단어입니다. 즉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자세라는 말씀입니다. 부모 자식은 단순한 인간관계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부모 공경이 하나님을 경외함의 시작이며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주님은 부모에게 물질적 도움을 회피하는 자도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린 자라고 하셨습니다(막 7:9). 개인 주의, 평등 주의, 실리주의가 판치는 시대에 끝없이 변하는 세상에서 절대적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부모를 비방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신 말씀을(마 15:4) 기억하고 부모의 존재 가치를 깨달아 있는 모습 그대로 공경해야 합니다.

2) 순종: 부모를 공경한다면 순종은 저절로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에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실 때 “들으라”가 바로 순종입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도 하나님께 제사드리려 했으며 변명했을 때 사무엘은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우리가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만큼 좋아하시지 않으시며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제물보다 낫다고 했습니다(삼상 15:22).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오직 순종과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순종과 신앙은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습니다(요일4:20). 부모의 말을 들으면 그 마음을 헤아리게 되어 높은 수준의 순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나이 들면 힘이 없어지고 서러워지는 그 마음을 잘 헤아려 함부로 대하지 말고 올바른 순종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쉰 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하셨습니다(레 19:32). 또한 아버지에게 청종하고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하신 것을(잠 23:22) 기억해야 합니다.

부모는 불쌍히 여길 대상이 아니라 공경과 순종의 대상입니다. 효는 도덕이나 문화, 전통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복받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복받는 비결로 알려 주신 부모 공경과 순종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길보리 온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금주의 공동 기도 제목

1. 일상에서 여러 일들을 만날 때 먼저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는 성도들이 되도록.
2. 교역자들과 향존 직분자들이 성령 충만과 지혜로 겸손히 성도들을 섬기도록.
3. 어떤 환경에도 감사하며 하나님을 찾는 성숙한 성도들이 되도록.